

2014년 창작뮤지컬육성지원사업 뮤지컬/오페라아카데미 심사평

- 일시 : 2014. 7. 22(화) 13:00-18:00
- 장소 :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
- 심의위원 : 김학민, 변희석, 이병훈, 이희준, 임준희 (가나다 순)

뮤지컬·오페라 아카데미 사업은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 창작을 목적으로 공연 창작에 기본 소양을 갖춘 작곡가, 작가들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개별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였다.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뮤지컬·오페라 분야의 활동 경험자로 제한하지 않고, 타 장르(영화, 드라마, 전통연희 등) 창작자도 대상에 포함하였다.

이번 공모에는 총 78명이 지원하였다. 1차 서면심사와 1, 2차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24명의 지원자들을 선정하였는데, 예술적 기량(30%), 성장 잠재력(30%), 독창성 및 참신성(20%),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되는 성취도(20%)를 선정기준으로 하였다.

특히 작곡 분야의 경우, 클래식 음악은 물론, 국악, 현대음악,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지원신청을 하였으며, 활동 수준도 대학 졸업 예정자부터 이미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예술가까지 그 분포가 다양하였다. 작곡 분야 지원심의 시에는 전술한 심의 기준과 함께 작곡가로서 장르 화법의 이해도와 경험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.

극작 분야의 경우도 작곡 분야와 마찬가지로 오페라와 뮤지컬 분야 뿐 아니라 연극, TV 드라마, 영화, 라디오 방송,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예술가들이 지원신청 하였다. 극작 분야 지원심의 시에는 작가로서의 철학과 재능, 협업에 대한 가능성 및 태도 등도 함께 보았다.

이번 아카데미 교육생 선발 시 특별한 점은, 지원자의 성향이나 제출된 작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공 장르를 변경하여 지원결정을 한 것이다. 전공 장르의 변경은 심사위원들과 신청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, 무엇보다 본 과정이 뮤지컬·오페라 통합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, 향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.

향후 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창작뮤지컬과 오페라사에 남을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길 희망하며, 지원신청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.

뮤지컬오페라 아카데미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